
서 평

단절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남은 강한 한국인의 초상

[서평] 최정운(2013), 『한국인의 탄생』, 미지북스, 580쪽.

차 원 현*

1. 기억과 진실, 역사

테일러 헉포드 감독, 캐시 베이츠 주연의 『돌로레스 클레이븐』(Dolores Claiborne)(1994)이라는 영화가 있다. 스티븐 킹의 원작(1993)을 영화화한 것으로, 일급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러 고향에 되돌아 온 도시의 한 여기자와 그녀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과거사의 진실과 그 진실을 대면하는 인간 심리의 복잡성과 문제의식을 다룬 작품이다.

딸은 어머니의 유죄를 확신한 상태에서 귀향한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18년 전에 자신의 남편이자, 딸의 생부(生父)를 살해한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딸은 자신의 어머니가 살인범이라는 심증을 갖고 고향을 떠났다. 그러나 영화가 진행되면서 진실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 진실은 기억과 연관된

* 문학평론가, 경주대학교 국제한국어교원학과 교수

인간 심리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딸의 생부를 살해한 것은 어머니였지만, 이유인즉슨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어릴 적에 딸은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딸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 한다. 그 일 때문에 일식(남편살해의 상징)이 일어났는데도 어머니의 남편 살해만을 기억할 뿐, 그 문맥이 되었던 생부의 성추행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덕분에 자신이 직접적 계기가 되어 일어난 비극이 단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비극으로 치환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인간 심리는 때로 교활하다. 간사하고 음흉하며 노회하다. 교활함이 극에 달하면 자기기만이 나타난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는 이런 종류의 자기기만에 대해 잘 묘사하고 있다. ‘맛나 보이는 포도’, ‘못 먹을 포도’, ‘신포도’라는 의미화의 둔갑술이 구사되면서 당혹스런 사태는 종결된다. 인간 심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연루되어 발생한 사건의 비극적 진실을 법적 심판의 절차 속에 들어간 어머니의 문제로 치환하여 덮어버리려는 태도는 흠 없는 자기 혹은 균열 없이 잘 통합된 자기를 염원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다. 사건의 진실과 그 속에 담긴 삶의 웅숭깊은 비극성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리고 그것을 둘러싼 법적, 실증적 해석과 사후적인 처리만이 문제시되고 있다.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진실의 훼손, 비극성의 소멸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해(利害)가 자신의 내적 모순 때문에 파멸로 귀결되듯이, 인간 심리 역시 저 기만과 왜곡, 훼손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과 삶의 근원적인 비극성을 무의식의 심연 속에 집어넣고 자물쇠를 채운 후 온갖 잡동사니를 그 위에 쌓아 자신을 위장하고 싶어 하지만, 이런 상태는 오래 가지 않는다. 일찍이 프로이트가 간파한 대로 위장된 의식의 하부에서 꿈틀거리는 무의식이 신음소리를 내지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돌로레스 클레이븐』(1994)에 나오는 영민한 ‘딸’의 경우 그것은 일상 속의 신경쇠약으로 나타났다. 현실 속의 그녀는 영민하고 촉망받는 기자

이지만, 과거의 비극은 이미 그녀의 영혼 깊숙이 낙인을 찍어놓고 있었다. 뒤통자 상처(trauma), 제멋대로 증식하는 암세포(implosion) 혹은 넘쳐 흐르는 과잉의 에너지(surplus)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기왕의 라이프스토리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서사를 요구한다. 결국 그녀는 원래의 자리, 일식이 일어났던 사건 현장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영화는 기억과 진실, 행위/의식/무의식의 분열, 삶의 비극성, 인간 영혼의 억압과 해방 등 복잡한 키워드를 거쳐 마지막에 가서야 진실을 토해낸다. 무의식(영혼)의 수준에서 보자면, 그녀야말로 그 사건에 깊숙이 연루된 진범의 하나였던 것이다.

지난 세기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우리의 현대는 ‘소화되지 않은 충격’과 ‘문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단절’의 연속이었다. 그런 세상을 살아온 인간들의 심리가 온전할 리 없다. 역사적 체험의 저장고인 기억은 난마처럼 얽힌 상태로 존재한다. 층층으로 구겨 넣은 갖가지 경험들은 정돈되어 통합되지 못하고 제각각 부글부글 끓고 있다. 만일 역사의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 들끓고 있는 소용돌이의 내부에서 올려 퍼지는 단말마의 형태로만 감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리라 상상해 본다. 역사의 영혼 속에 내장된 온전한 진실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만 반드시 대가가 존재하는 법이다. 그 대가는 심리적 통합의 상실, 영혼의 실종, 병적(pathetic) 분열이다. 해방 이래 한국 사회는 집단적으로 이런 증후군을 앓아 온 것이 아닐까 싶다. 역사 연구가 준엄한 영역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2. 증거와 전범이 없는 시대의 역사 읽기

역사물은 시간 압축을 통해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고, 거기서 현재를 가늠하며 가치 있게 통합할 수 있는 역사적 증거를 발견

할 수 있다는 믿음 위에 서 있다. 과거는 신뢰할만한 증거로서 존중되며, 반드시 도달해야 하고 되돌아와 현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힘으로 존재한다. 역사물이 항용 집단적 통합의 서사이자 확인의 서사로 간주되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천에로의 회귀 혹은 그것의 참조를 통해 현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통합할 수 있다는 소망 따위는 니체의 말마따나 무한 갱신 위에 박진감 있게 변전해 가고 있는 현대적 삶이 낳은 현기증에 대한 두려움의 한 변양일 뿐인지도 모른다. 뒤집어 보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그런고로 자기 확인과 통합의 집단적인 서사가 아니라 개체를 엄습하는 무의미한 삶의 공포와 불안에 대면하되 회피하지 않는 개체의 실존적 상실과 해체, 분열, 파멸의 서사가, 그리고 그로부터 획득 가능한 역설적인 자기 확인의 서사가 요구되는 시점에 역사물이 진입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한마디로 역사의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준거와 전범이 없는 시대로 우리 사회가 이미 깊숙이 진입해 들어왔다는 증거다.

역사 오락물을 자처함으로써 장안의 화제가 되었고 한류의 출발점 노릇을 했던 『대장금』이나 즐거운 역사 읽기를 표방하면서 나타난 『조선의 뒷골목 풍경』,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등이 보여주는 전복적인 면모는 이런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읽힌다. 『대장금』의 ‘장금’이 시대적 문제에 대면한 역사적 인물상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실존적 과제를 장인적 수련을 통해 풀어내려한 보편적 개인이듯 저 역사서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대상들 역시 주어진 사회적 틀 속에서 자신에게 할당된 운명 속에서 부유해 간 지극히 파편화된 개인들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의미론적으로 완결된 시대상을 그린 후 시대간의 격차를 저울질함으로써 지금의 삶 전체를 조망하려는 전통적 역사의식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증적인 연구로서의 역사보다는 텍스트화된 역사, 즉 서사화된 역사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들의 공통점

이다.

정치학자인 최정운 교수가 쓴 『한국인의 탄생』(미지북스, 2013)은 이런 텍스트화 경향 혹은 서사화된 역사 이해 경향의 현대사 판본으로 읽힌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최정운 교수의 이 책은 사상사의 차원에서 한국현대사의 결정적인 지점들을 되짚어보는 저서를 표방하고 있다. ‘사상사’라 했지만, 준거와 전범이 없는 시대의 역사 읽기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의 너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대한 우회적인 요청을 밝힌 것으로 읽힌다. ‘객관적 사실로서의 역사’에 괄호를 쳐야만 “심연에 가라앉아 보이지 않던 그들의 참모습이 우리 눈앞에 떠오르는 진귀한 장면을 마주하게 된다.”는 진술은 후설(E. Husserl)적이다. 기왕의 철학이 눈길을 주지 않았던 생활세계의 복원을 자기 철학의 중심으로 받아들였던 후설이 사실에 대한 판단정지를 요구했던 것처럼 최정운 교수 역시 ‘객관적 사실로서의 역사’를 ‘경험과 기억, 연속과 불연속의 의식과 무의식의 역사’로 대체하고 있다.

분열되고 단층 지워진 집단 경험과 집단 심리를 동시에 읽어내는 일은 해석학의 과제이다. 저자는 이를 위해 기왕의 실증주의 사학이 취한 텍스트와는 완전히 다른 소설 작품들을 통해 한국사를 복원하는 길을 택했다. 『홍길동전』과 『춘향전』, 국문학계에서는 애국계몽기 소설로 분류되고 있는 ‘신소설’, 이광수의 『무정』(1917)과 신채호의 『꿈하늘』(1916), 김동인과 나도향, 박태원, 이상의 소설들, 최종적으로는 이광수의 『유정』과 홍명희의 『임궽정』(1940) 등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기록한 역사적 텍스트로 소환되고 있다.

학제적 분류의 차원에서 보자면 최정운 교수의 책은 역사학과 정치학, 국문학 세 분야가 중첩되는 지점을 파고들어 현대 한국사의 경험을 정리하려 한 역저라 할 만하다. 서평을 쓰고 있는 필자는 한국현대문학 특히 그중에서도 현대소설 및 비평론을 전공한 국문학자이다. 이 관점에서 최정운 교수의 『한국인의 탄생』을 힘닿는 대로 독해해 보고자 한다.

3. 불기(不羈)의 개인

‘불기’(不羈)는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영어로는 ‘invincible’ 정도의 뜻이 아닐까 한다. 『홍길동전』과 『춘향전』에서 작중인물을 바라보는 최 교수의 시각은 그들이 불기(不羈)의 개인이라는 사실에 놓여 있는 듯하다.

‘홍길동’이 서자인 만큼, 『홍길동전』은 조선 중기 이래 ‘서얼’ 계층에 가해진 사회적 압력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국문학계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홍길동’을 옥죄는 주요 갈등인 호부호형(呼父呼兄)의 욕망은 서얼 계급에 가해진 전근대적인 계급 구속의 산물이며 활빈당이니 울도국이니 하는 것들은 서얼 계급의 가능의식의 최대치를 그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쉽게 말해 ‘홍길동’은 살아 움직이는 자율적인 개인이라기보다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계급적 상황에 얽매인, 그 시대를 되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는 시대의 산물이자 희생자로 간주된다. ‘춘향’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녀는 자유연애와 결혼을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계급 간 혼인을 금지했던 당대 혼인 규범의 희생자일 뿐이다.

최 교수의 시각은 좀 다른 듯하다. 그는 ‘홍길동’과 ‘춘향’을 규정짓는 시대적 요인을 충실히 참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쪽에 방점을 찍지는 않는다. 최 교수가 관심을 기울이는 대목은 불기(不羈)의 개인으로서의 ‘홍길동’과 ‘춘향’이다. 쉽게 말해 시대의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불태워 시대 전체를 밝힌 촛불 같은 개인으로 저들을 대하고 있다. 예컨대 홍길동이 호부호형(呼父呼兄)의 욕망을 벗어던지는 시점에 주목하는 방식은 전형적이다. 호부호형(呼父呼兄)의 욕망에 갇혀 있는 한 홍길동은 당대의 계급적 문맥(context)에 사로잡힌 한 가련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욕망을 추동하고 있는 당대의 슈퍼에고(superego)를 집어던진 순간 홍길동은 스스로 슈퍼맨(superman)이 된다. ‘superman instead of superego’라는 명제가 최 교수가 고전시대의 한국소설 텍스트를 선택하는

준거이자 현대적인 한국인의 탄생을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하다. 최 교수가 『심청전』을 근대 이전 사회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텍스트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두 축인 국민국가의 완성과 자본주의 경제 발전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에 미달하는 전근대의 한국 사회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는 『홍길동전』과 『심청전』을 들 수 있다. 전자는 계급적 불평등의 문제를, 후자는 저발전에서 따른 경제적 궁핍을 잘 형상화한 작품들이다. ‘심청’은 아버지인 ‘심봉사’의 경제적 무능의 희생자이다. 쉽게 말해 그녀는 인신매매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가장의 무능과 그에 따른 인신매매는 한국소설의 주된 테마 중 하나이다. 최 교수가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이광수의 『무정』(1917)에 나오는 주요 인물 중 하나인 ‘영채’ 역시 강요된 선택에 따라 ‘기생’으로 팔려간 여인이다. 구한말의 애국지사였던 아버지, 박진사의 죽음과 그에 따른 가계의 몰락이 순결한 이 땅의 누이를 매춘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심청’을 인당수에서 살려내어 왕비로 만들고 ‘영채’를 자살 충동에서 살려내어 외국으로 유학을 보낸 것은 바로 저 순결한 누이에 대한 우리 민족사의 강박에서 나온 뜨거운 정념의 소산이다. 그러니까 ‘심청’과 ‘영채’, 더 나아가 이 땅의 순결한 누이들은 보호된 순결함, 더 나아가서 위장된 순결함의 아이콘들인 셈이다. 그 보호와 위장의 뒤쪽에는 ‘만인이 만인에 대해 늑대가 되는’의 삶의 참혹한 현장을 맨 몸으로 뒹굴어야 했던 수많은 이 땅의 누이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4. 홉스(T. Hobbes)적 자연 상태

개화기를 바라보는 최 교수의 기본적인 시각은 환상 없는 냉소적인 『심청전』의 시각이다. 그것은 전통사회로부터의 급격한 단절과 외부의

강압에 의해 조성된 흡스적인 자연 상태이다.

최 교수는 개화기를 살아야 했던 우리 민족의 실존을 근대라는 변혁기의 바다 위를 표류하는 ‘노 잃고 닷 꺾인’ 조각배들의 삶 혹은 더듬이 잃은 벌레들의 필사적인 구난도생기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심청전』으로부터 한때 순결한 가정의 수호신이었으나 아버지의 무능력으로 인해 버려지고 고난에 처한 순결한 여인의 서사시 혹은 수난을 통해 정화되어 온전함을 되찾는 공동체의 자기 확인의 서사라는 종래의 수난사적 골격을 제거해 버린 것과 같다. 신소설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헤일처럼 몰려오는 운명의 괴박함과 가혹함 앞에 엎드려 어찌할 바 모르는 자, 이른바 자연의 숭고 앞에서 느끼는 동물적 능력들의 탈진을 인격화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자신의 존재 권리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 외에는 어떤 탈출구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대면한 개인들의 삶은 인간됨의 족적을 기술하는 역사 서술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그것은 차라리 변화무쌍한 자연 앞에서 스스로를 적응시켜온 미물들의 역사, 이른바 자연사(自然史)를 닮아 있다.

자연사는 적응과 보존의 역사, 생존의 역사이다. 고통과 쾌락이 있을 뿐, 수난과 영광은 없다. 니체 식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예의와 도덕, 선악, 시비 따위의 가치들에 얽매이지 않는 삶에 관한 서사이다. 지켜야 할 유일한 가치는 존재의 보존과 확장이다. 냉혹하고 전율스러운 자기 운동만을 알 뿐 인간적 가치들에 무관심한 자연으로부터 쟁취해 낸 인간 행위의 결과물에 대한 서사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역사가 될 수 없다.

생존 전략이 유일한 나침반인 세계에서, 협력, 협조나 지배, 착취, 군림, 복종 같은 관계의 형식들은 다 같이 가치를 잔뜩 머금고 있는 기념비적인 삶의 형식이 아니라, 생존을 도모하는 삶의 자연스러운 외피에 불과하다. 누구나 지배자가 될 수도, 피지배자가 될 수도 있고, 협력관계나, 도태, 멸절의 관계에 놓일 수도 있다. 개화기의 친일 지식인에 대한 최 교수의 유보적인 태도는 정치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당대 한국사회에

대한 저런 자연사적인 역사 인식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인 것으로 읽힌다.

5. 결벽적 반지성주의

『임꺽정』(1940)은 기층 민중의 반체제 활동이 극성을 부리던 16세기 조선민중의 휴머니즘에 기대어 1930년대 당대의 해방 사상을 선양하고자 했던 역사 소설이다. 작가 자신 검열의 엄혹함을 우회하고 대중성을 획득하기 위한 고심의 일환으로 의미 부여하고 있는 만큼 『임꺽정』(1940)은 1930년대 진보문학 활동의 일환으로 역사를 소환하려는 계몽적 역사소설의 전통을 이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서에 따르면, ‘임꺽정’은 ‘양주의 백정’이었다. 의리는 인간 삶의 본 바탕이거니와, 계급 정치의 가혹한 악정에 신음하던 기층 민중들의 원한을 소수의 반사회적 의기로써 고발하거나 초월적인 설법 수준에 멈추지 않고, 민중의 끈질긴 협력에 의해서만 창출 가능한 해방된 세계상을 지향하는 인간 보편적 열망으로 묶어낸 것은 1930년대 역사소설의 한 경지를 드러내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사의 진행은 이들 기층 민중들의 삶의 고통과 집단적인 도주, 의식화의 과정, 탐관오리와 악덕 부호들에 대한 징치와 굶주리는 이들에 대한 구휼의 과정 등을 살살이 훑어나가면서 윤리적이고 집단화된 연대에 바탕해 삶의 사회적 지평을 갱신함으로써만 만인이 평등한 세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강렬한 유토피아 지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염원은 정치적 좌절마저도 꺾을 수 없다는 사실, 현세에서의 해방을 지향하지만 설혹 그것이 좌절된다 하더라도 참된 역사에 대한 민중들의 확신과 열망은 종식되지 않는다. 비극적 승엄의 세계가 열린 셈이다. 실패조차도 저 비극적 승엄의 세계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패야말로 현실 부정의 유토피아 지향성이 현실 속

에 노정되었을 때 나타나는 비극적인 자기 해소의 에토스라는 차원에서 민중적 역사 서술의 핵심으로 간주되고 있다.

문제는 타협 없는 민중 봉기와 도덕적인 세계 재편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식의 근본주의적 생각에 있었다. 한 비평가는 이런 식의 정치학을 ‘도덕의 정치학’이라 호명하고 ‘결핍과 부재의 욕망에 추동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¹⁾

최정운 교수 역시 마찬가지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 주체로서 ‘도덕적 민중’을 상정한 뒤, 현실 속에 존재하는 일체의 ‘생활세계의 불합리와 모순, 억압의 경험, 사적 슬픔’들을 ‘도덕화한 역사’속에 투사함으로써 ‘역사의 도덕화’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이다. 『임격정』이 요구하는 역사의 과도한 이상주의와 방법론의 낭만성, 연대의 윤리주의 등이 현실을 과도하게 축소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셈인데, 『임격정』이 다루는 시대의 한계가 만들어낸 한 편의 비극을 1930년대의 문학이 사후적으로 과도하게 사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올바른 지적이다.

사실 이런 방식의 과도한 도덕화 경향은 『임격정』의 저자인 홍명희의 시대가 갖는 비극적 측면의 분출일 수 있다. 현실의 부재를 미래의 희망으로 보충하는 유토피아 사상에는 현실의 결핍과 고통을 보상받고자 하는 개인들의 욕망이 존재한다. 그것을 나쁘다 말할 수는 없으나, 일체의 숭고한 신념은 외기를 씌는 순간 상투화될 염려가 있고 빛나는 모든 순간은 세속의 시간에 의해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 등을 돌리고 존재하지 않는 역사의 신에 자신의 운명을 가탁하는 일의 다른 이름은 죽음 충동이다. 『임격정』은 이런 방식의 충동을 현실 전유의 윤리적 경향성이라는 차원에서 용인해 들인 데서 성립한 것이므로, 이를 그 작품이 창작된 1930년대 일제 강점하의 한국 정치학의 무의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신형기, 「민중 이야기와 도덕의 정치학—『장길산』 다시 읽기」, 『문학판』 통권14호, 2005년 봄, 64~65면.

『임꺽정』이 형상화한 민중에는 역사에 대한 이성적인 기획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작가가 민중을 고귀한 야만인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그 이면에 놓인 무분별한 본능과 합리적 사고를 결여한 충동을 보지 못 한다면 ‘행위’ 속에서 일상을 지양해버린 농민들의 연대는 분노의 연대일 수는 있어도 혁명의 그것일 수는 없다. 『임꺽정』의 결벽적인 반지성주의는 ‘임꺽정’이라는 인물이 풍요로운 민중적 육체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일상적 생활과 풍속이 전혀 작품 속에서 중요한 요소로 표출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6. 단절과 분열의 역사, 강인한 한국인의 초상

최정운 교수의 『한국인의 탄생』이 갖는 최대의 미덕은 그가 한국의 현대사를 도덕주의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최 교수가 바라보는 한국 현대사의 기본 골격은 수난과 회복의 역사가 아니라 급격한 단절과 균열의 역사이며 외설과 추문으로 무장한 괴물에 맞서 적응하면서 자기 구성을 시도해야 했던 강인한 모험의 역사이다.

이상(理想)은 현실의 결과물이자 진공 속의 생산물은 아니다. 불행한 현실, 외설과 추문으로 얼룩진 우리 역사를 윤리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은 따뜻하지만 거기에는 리얼리티가 없다. 최정운 교수의 『한국인의 탄생』(미지북스, 2013)은 이런 쪽에 자신의 패를 걸고 있는 역사물로 읽힌다. 살아남기 위한 자기 보존의 이성만을 강조하는 일도 경계해야겠지만, 만사를 윤리적 잣대로만 재단하려는 한국 사회의 반지성적 순수 결벽도 경계해야 한다. 천연덕스럽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눈앞의 이익과 과제만을 좇아 살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그간의 우리 사회가 안고 왔던 분열과 적대에 관한 과도하게 증폭된 감수성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잭 런던은 『별 방랑자』(1915)에서 ‘물질은 거대한 환상이다.’고 말한 바 있다. 『별 방랑자』(1915)는 미국에서도 가장 혹독한 수형 조건으로 유명한 샌 쿠엔틴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자신이 처한 엄혹한 현실을 달래기 위해 상상 속에서의 또 다른 시공간을 여행하는 이야기이다. 주인공은 특수하게 고안된 처벌 방에서 숨쉬기조차 힘든 육체적 결박 상태 속에 놓여 있다. 육체가 한계에 도달할 때 정신의 세계가 열린다. 그가 여행하는 상상 속의 시공간은 인류사가 발전해 온 바로 그 시공간과 중첩되어 있다. 잭 런던이 말하고자 한 바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육체의 극한은 자유로운 정신이며, 이 두 가지를 도구 삼아 인류는 자신의 역사를 개창해 온 것이라고.

최정운 교수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육체와 정신의 온전한 통합, 따뜻한 윤리가 아니라 파괴와 단절, 죽음과 폐허의 시간이 오히려 삶의 전율스런 진면목이며, 후자를 경유해야만 전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말이다. 설혹 최 교수의 저서가 노정하고 있는 역사의식의 저러한 리얼리즘이 공포스러운 윤리를 경과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삶의 전율스런 진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21세기의 초업을 경과하는 우리 사회의 진실이 날 것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글은 최정운 교수의 『한국인의 탄생』(미지북스, 2013)에 대한 서평 형식으로 쓴 글이지만, 정작 그 책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인 이광수, 김동인, 박태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부기해둔다. 결례를 무릅쓰고 굳이 그 이유를 밝힌다면, 해당부분의 서술이 국문학계의 기존 연구 성과들과는 다소 동떨어진 지점에서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아쉬움이 더 있다면 작품을 인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국문학계가 공들여 만들어 둔 정보를 이용해주시는 점이다. 능력이 모자라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부디 가려서 읽어주시기 바란다.